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공동대표 윤종엽, 김봉기) 외 기관 및 개인 소액주주 28인(확보주식 300,195주, 발행주식 총수의 3.28%) 2017년 9월 12일 아트라스비엑스 측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내용증명 발송.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행동주의펀드를 운용(8월 28일 현대홈쇼핑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에 서신발송 언론 공개. 추후 주주제안 계획) 중에 있으며,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권리행사 중.
제 1호 안건 주식 액면분할(액면가 1,000원→100원) 실시
제 2호 안건 자사주 소각 후 코스닥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 결의.

소집청구 이유는 지난 6월 14일 코스닥시장규정 일부개정으로 주식분산요건 미충족 상태가 예상되고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19년 관리종목 지정, 2020년 상장폐지 될 수순이기 때문. 소액주주측은 관리종목 지정이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요인이므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정된 주식은 기업가치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도 기관투자자는 물론 개인도 매수를 꺼려 저평가 상태를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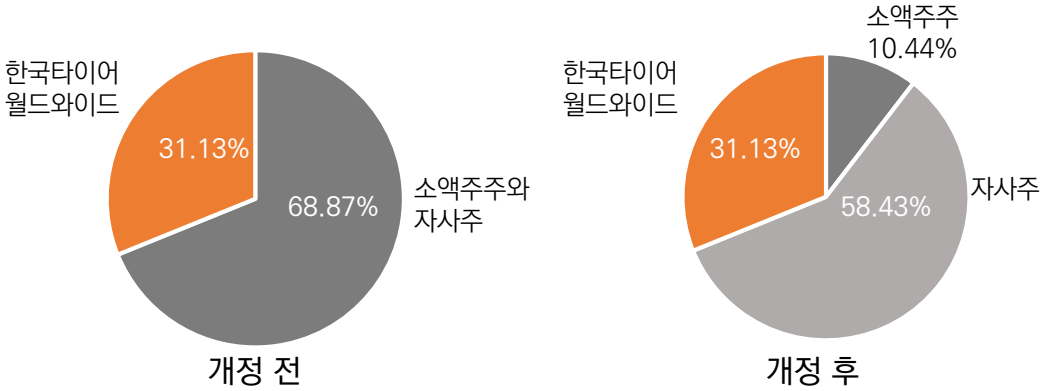
또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대주주와 소수주주간 단위주식수 당 동등한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관리종목지정 예정이라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유 때문에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경영진 및 이사회 이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대주주가 선임한 경영진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기업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아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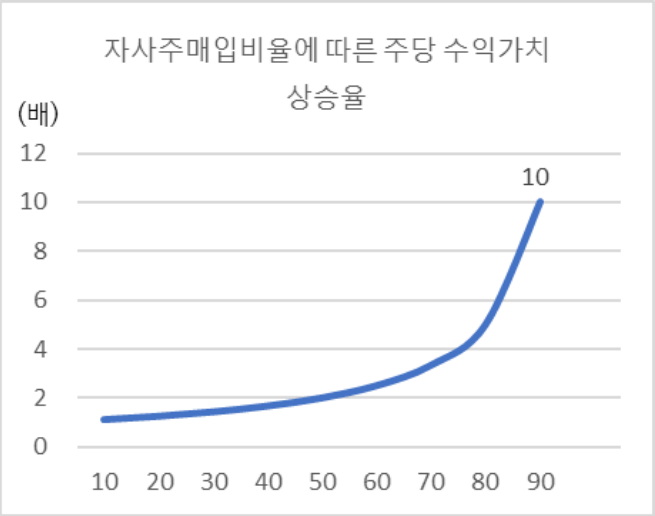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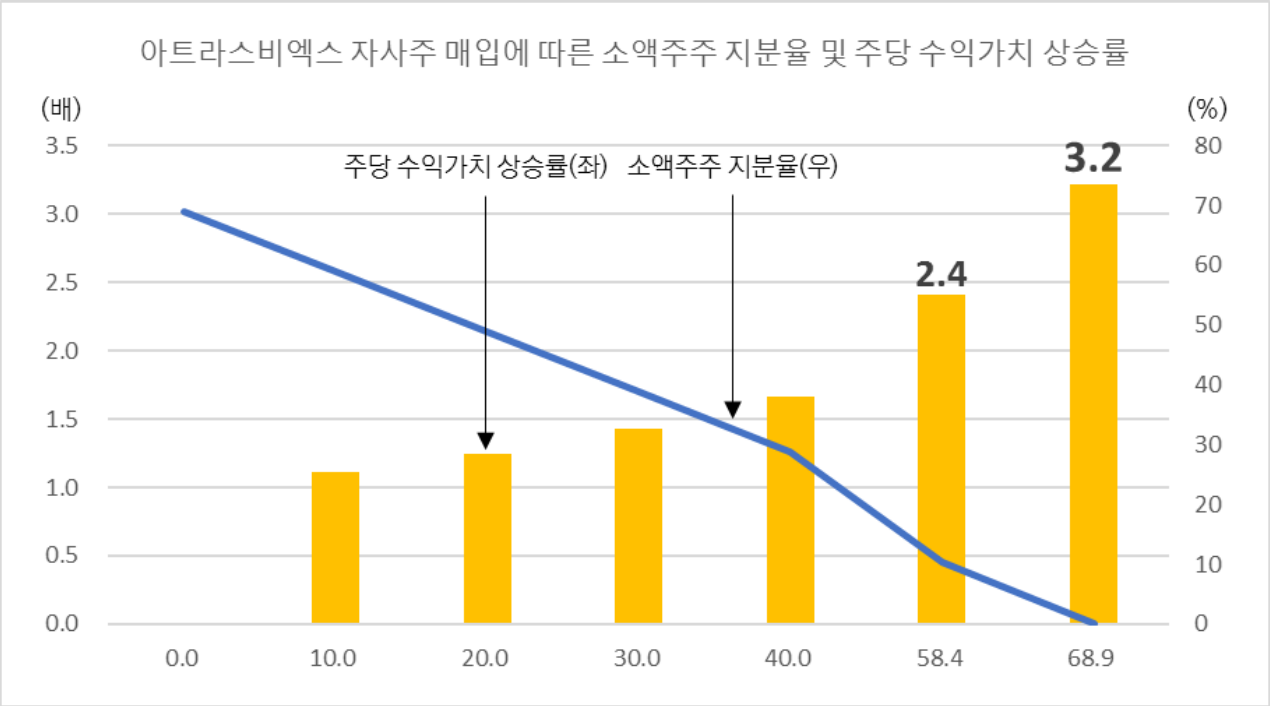
문제는 지난 6월 14일 거래소측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소액주주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 발단. 아트라스비엑스의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종전 68.87%에서 10.44%로 대폭 축소되고, 회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20% 이상) 미충족 상태로, 2019년 4월 관리종목 지정, 2020년 4월 상장폐지가 예상됨. 관리종목지정이 예정되면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됨. 이러한 저평가 상태가 상장폐지시까지 지속된다면, 자사주 매입이라는 제로섬게임 형태의 거래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고 상대적으로 대주주는 소수주주의 희생을 대가로 이익을 편취하는 결과를 초래함.

아트라스비엑스는 자동차 배터리 전문기업으로 과거 10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642억 원에 달하는 알짜기업. 자사주는 매입하면 할수록 잔존주주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사주 58.43% 매입으로 이미 아트라스비엑스의 주당수익가치는 2.4배 증가했으며, 추가로 매입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향후 잔여주식 전량 자사주 매입 시 최대주주의 주당 수익가치는 3.2배 증가하게 됨 (아래 표, 그림 참조). 이렇게 볼 때 아트라스비엑스의 내재가치는 최소 주당 12만 원 ~ 21만 원은 돼야 하며, 만약 대주주가 이런 점을 무시하고 가치의 1/3~1/4 가격인 주당 50,000원(1,2차 공개매수가격) 헐값에 잔여지분 확보에 성공한다면 대주주는 최소 670억원 ~ 1,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소액주주로부터 빼앗는 꼴이 됨.

아트라스비엑스는 2016년 3월 자진상장폐지를 선언하고, 같은 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주주지분31.3%, 자사주 58.43% 합산지분 89.56%를 확보하였으나, 상장폐지에 필요한 95% 까지는 약 5% 추가매수가 필요한 상황.

상장규정 개정으로 인한 소액주주 지분 변화



자사주 매입 비율에 따른 잔존주주 주당수익가치 증가

자사주 매입 비율(%)	잔존주주 주당수익가치 증가율(배)
10.00	1.1
20.00	1.3
30.00	1.4
50.00	2.0
58.43	2.4
68.87	3.2
80.00	5.0
90.00	10.0
99.00	100.0